

2022 경기 에코뮤지엄 결과자료집

안산 : 땅과 시간의 이야기





2022 경기 에코뮤지엄 결과자료집

안산 : 땅과 시간의 이야기



Contents

사업소개

- 08 에코뮤지엄이란
- 10 발자취
- 12 2022 경기 에코뮤지엄 <안산 : 땅과 시간의 이야기>
- 14 3가지 프로젝트
- 16 함께한 지역커뮤니티
- 18 안산 에코뮤지엄 거점 공간

섬의 기억을 찾아 큰섬뿌리

- 26 큰섬뿌리 프로그램
- 30 대부도 거점 문화 공간 조성

땅과 시간의 이야기 프로젝트

- 38 마을에리어
- 42 기억에리어
- 46 역사에리어

하나로 연결하기 이음 프로젝트

- 52 하나로 연결하기 이음 프로젝트
- 54 안산시 에코뮤지엄 컬렉션
- 56 안산시 에코뮤지엄 이음 지도
- 58 권역별 지도

사업을 마무리하며

- 62 갈무리
- 64 사업후기 - 참여단체
- 66 사업후기 - 참여자
- 68 에코뮤지엄을 함께한 사람들
- 70 참여실적

Contents

01

에코뮤지엄이란

발자취

2022 경기 에코뮤지엄 <안산 : 땅과 시간의 이야기>

3가지 프로젝트

함께한 지역커뮤니티

안산 에코뮤지엄 거점 공간



에코뮤지엄

'에코뮤지엄 Ecomuseum'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리며, 지역의 역사·문화·생태 및 공동체 자원을 주민 스스로 탐구하고, 보존하며, 활용하는 활동의 총합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에코뮤지엄은 작품 전시에 치중하는 전통적인 박물관과는 달리, 주민들이 지역 고유의 문화와 건축 유산, 생활방식, 자연환경 등을 그대로 보존·계승하면서 이를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독특한 형태의 박물관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박물관 운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전시 이외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박물관'으로도 불립니다.

에코뮤지엄은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40여 년 전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문화유산 파괴 및 공동체 해체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창안되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등 지역 활성화 정책들의 연장선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경기 에코뮤지엄

'경기 에코뮤지엄'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경기도에 산재한 자연, 역사, 문화자원을 보존 및 활용하고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삶의 터전을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만들어가는 경기도형 시민주도 문화 브랜드입니다.

사업 추진 지역으로는 크게 경기 서부의 '경기만', 북부의 'DMZ', 동부의 '한강수계', 남부의 '원도심'으로 구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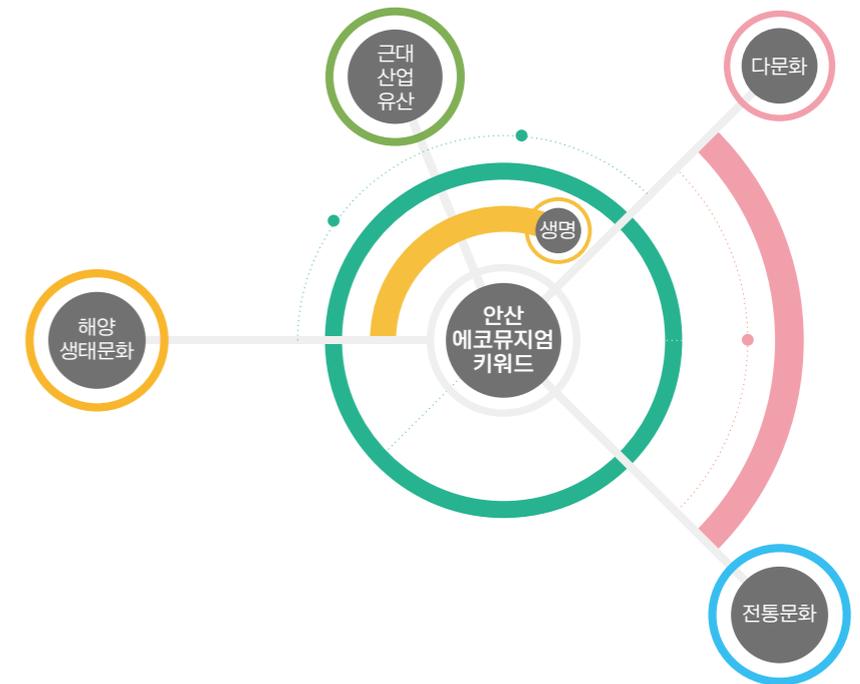
안산 에코뮤지엄

'안산 에코뮤지엄'은 2016 ~ 2018년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안산의 지역 문화를 아우르는 사업입니다. 대부도 에코뮤지엄, 선감학원 에코뮤지엄, 예술섬 누에 에코뮤지엄 등 대부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부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산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의 경과와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 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안산 에코뮤지엄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대부도를 포함하여 안산 전역으로 에코뮤지엄 사업지를 확장했으며, 안산의 다양한 문화·역사·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각각의 지역이 가진 특색을 담은 프로그램들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 에코뮤지엄은 안산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에코뮤지엄 자원을 발굴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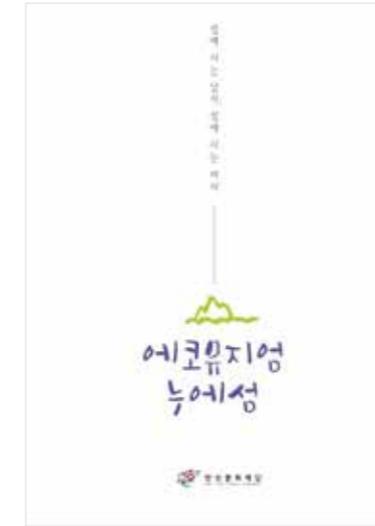


안산 에코뮤지엄 발자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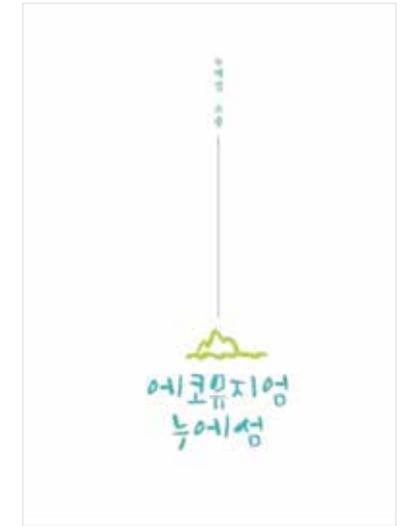
2016 어린이 예술 놀이터 에코아트	체험프로그램 '갯벌아, 예술아, 놀자' 4인의 예술가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파일럿 작품 전시
2017 바람과 춤추는 물고기 탄도 잇다_2017 섬에 사는 남자, 섬에 사는 여자	2016년 파일럿 프로그램 중 1개의 작품을 현실화하여 누에섬 작품 설치 탄도에 누에섬을 예술로 잇는 제의적 길놀이 공연 프로그램 지역 리서치 프로그램
2018 탄도 잇다_2018 히든아일랜드 투어 누에섬 소풍 바람 더하기 누에섬 툰 누에섬 연구조사	탄도와 누에섬을 예술로 잇는 관객 참여형 길놀이 프로그램 숨어있는 작품을 찾아 떠나는 투어 프로그램 가족 대상 산책형 투어 프로그램 자연과 함께하는 거리예술 공연 프로그램 누에섬을 배경으로 툰 제작
2019 풍어제 공연 거리예술공연 설치미술프로젝트 '히든아일랜드' 에코뮤지엄 투어 프로그램	옛 풍어제의 현대적 재구성 천연자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거리예술 공연 누에섬과 대부광산퇴적암층 고유의 생태환경과 역사의 결에 동시대 이슈를 반영한 13인 작가들의 설치미술 섬 곳곳을 산책하며 대부도의 생태환경을 이해하는 투어 프로그램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안테나 새'	대부도 누에섬의 장소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공감하는 공공미술
2021 에코시민학교 '바탕지기' 히든아일랜드 풍어제 공연 거리예술프로그램 에코투어프로그램 라운드테이블 에코뮤지엄 연구용역	에코뮤지엄 활동을 위한 지역활동가 육성 대부도의 자연과 문화적 예술 가치를 결합한 설치미술 풍어제 현대적 재해석 공연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프로그램 에코뮤지엄 자율 트래킹 투어 프로그램 안산시 에코뮤지엄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종합 토론 안산시 에코뮤지엄 발전 방향 수립 연구 용역



2016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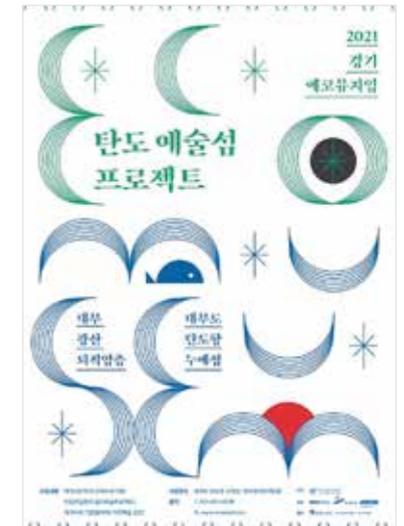
2018



2019



2020



2021

2022 경기 에코뮤지엄 <안산 : 땅과 시간의 이야기>

2022년, 올해 안산 에코뮤지엄 사업의 목표는 '확장과 주민참여'였습니다.
'경기만 에코뮤지엄'에서 '경기 에코뮤지엄'으로의 에코뮤지엄 사업 변화에 발맞춰
대부도를 포함하여 안산 전역으로 활동지를 넓혔으며, 사업 진행 방법 또한 권역별 거점
개발과 주체적 주민참여를 중점에 두었습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2. 5. ~ 12.
 사업지역 대부도, 사동, 안산동
 주최주관 안산시, 경기문화재단, 안산문화재단, 경기에코뮤지엄
 사업주관 문화공간섬자리, 1°C, 온새미로 마을학교,
 대부도 고갯부리섬 생태관광마을협동조합



3가지 프로젝트

섬의 기억을 찾아 <큰섬뿌리>

- <큰섬뿌리> 프로그램
대부도 지역활동가 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 및 실 프로그램 기획·운영
- 대부도 에코뮤지엄 문화 공간 조성
대부도 거점 공간 방문객을 위한 사업 안내 및 아카이빙 자료 배치, 기획전시 진행

<땅과 시간의 이야기> 프로젝트

- 마을에리어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지는 대부도 상동의 공동체적 유산 리서치 및 기획전시
- 기억에리어
사라진 사리포구를 중심으로 끊어진 뱃길과 포구의 기억 소환 콘텐츠 제작
- 역사에리어
안산동을 중심으로 안산역사의 발자취 탐구 교육 진행 및 기획전시

하나로 연결하기 <이음> 프로젝트

안산 내륙으로 확장된 거점 공간 및 에코뮤지엄 컬렉션·지역 유산 소개 지도



함께한 지역커뮤니티

문화공간 섬자리

2015년 대부도 상동에 자리 잡은 '문화공간 섬자리'는 지역리서치를 토대로 지역의 여러 잠재적인 층위를 드러내거나 불러내는 방식으로 지역문화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프로젝트팀입니다. 섬자리(ISLAND BED)는 '섬이 잠들고 깨어나는 곳, 섬이 있던 곳'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기획자, 예술가, 일반 시민 등이 함께 합니다. 대부도의 퇴적지층처럼 지역의 여러 층위를 드러내는 폭넓은 프로젝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도 고갯부리섬 생태관광마을협동조합

대부도 고갯부리 마을의 생태 환경과 역사적 삶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주민공동체 '대부도 고갯부리섬 생태관광 마을협동조합'은 2016년 설립된 이래,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통한 주민 자율 생태관광 예술마을을 만들고 있는 지역단체입니다.

사동지역사모임

'사동지역사모임'은 2015년, 안산과 마을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주민들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지역의 역사를 찾고, 기록하며 과거와 현재의 모습, 그 사이에서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는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체적으로 마을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단체입니다.

은새미로 마을학교

'은새미로 마을학교'는 2016년부터 안산시 상록구 안산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마을공동체로 역사와 생태·문화·예술이 살아있는 건강한 마을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 모인 결과물입니다. 현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을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 에코뮤지엄 거점 공간

구 대부면사무소

안산 '구 대부면사무소'는 일제강점기에 창건된 옛 면사무소로 전통 한옥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1913년 민간으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다 1933년 설계 후 상량했습니다. 현재 건물 면적은 약 91.02㎡이지만 창건 당시에는 더 넓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현재는 내부의 벽체를 모두 철거하여 변형된 상태입니다. 당시 건축된 공공시설이 주로 벽돌조나 일본식 목골조로 이루어지던 것과는 달리 대부면사무소는 전통 한옥 양식에 일본식 가옥구조가 혼합한 독특한 양식을 보이는데, 이는 근대적 행정기능을 담당할 과도기적 행정건축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1934년부터 약 60년간 근대적 행정기능을 수행한 '구 대부면사무소'는 그 자체로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27호인 동시에 대부도 주민들의 일상에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장소로서 한 때 주민들의 피트니스센터, 유물창고 등의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는 대부도 에코뮤지엄 거점 공간으로 다양한 지역문화콘텐츠를 담고 있습니다.



안산 에코뮤지엄 거점 공간

1°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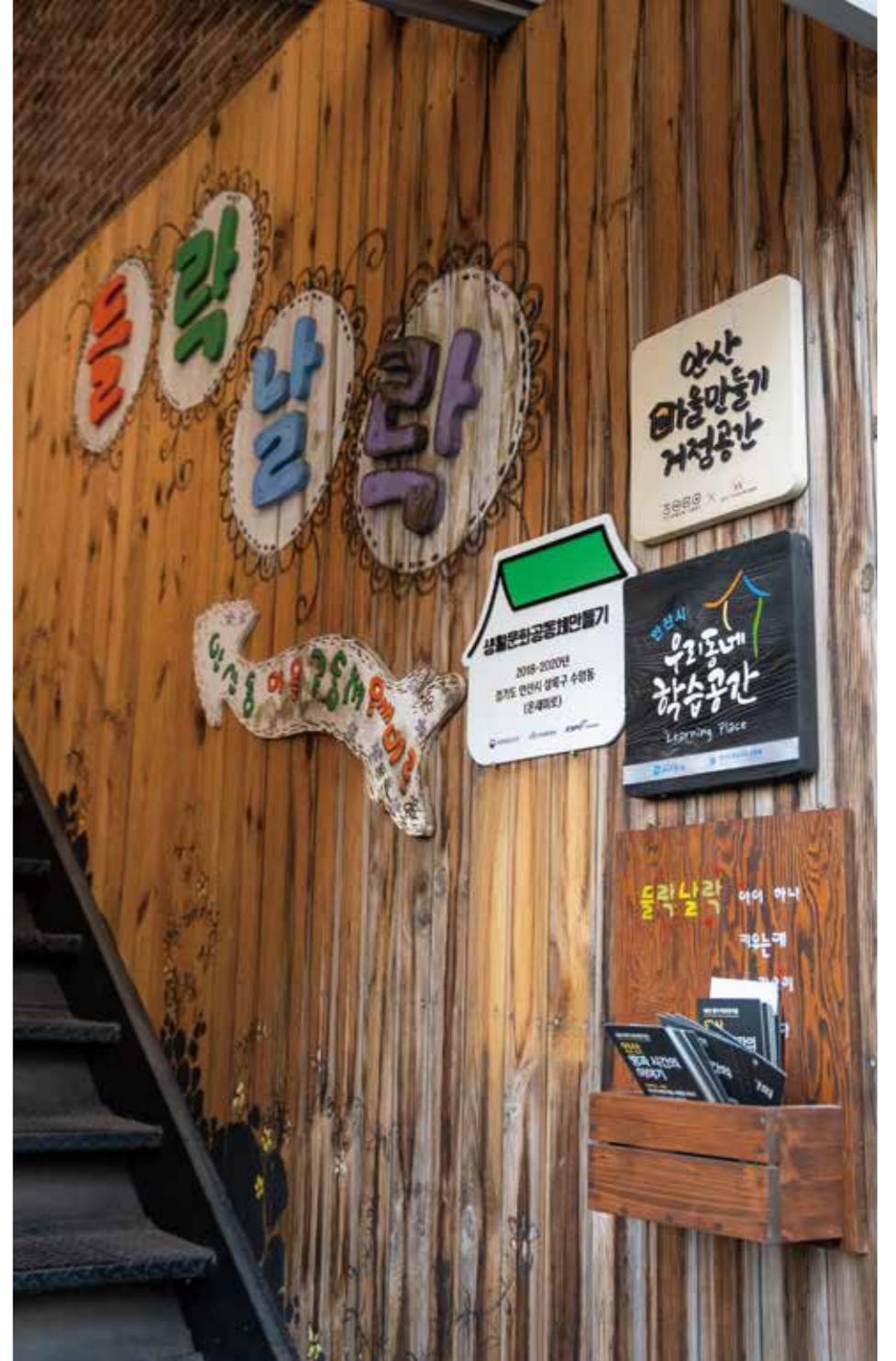
안산시 동남쪽에 위치한 사동에 자리 잡은 1°C(1도씨)는 주인이 따로 없는 누구나 주인인 마을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청소년 열정 공간 99°C(99도씨)와 함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100°C를 만듭니다. 사람과 이야기가 모이고 공감의 연대가 흐르는 곳입니다.



안산 에코뮤지엄 거점 공간

온새미로 들락날락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조성된 마을 커뮤니티 공간 '온새미로 들락날락'. 주민들의 솜짓돈과 직접 제작한 가구, 활동 결과물 등이 켜켜이 쌓인 공간입니다. 마을을 아끼는 사람들이 모여 활동가를 양성하고 모임을 이어 나가는 근간입니다.



섬의 기억을 찾아 큰섬뿌리

02

<큰섬뿌리> 프로그램

대부도 거점 문화 공간 조성



<큰섬뿌리> 프로그램

대부도(大阜島)의 한자를 보면, 그 뜻이 더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큰 대(大), 언덕 부(阜).

섬 같지 않고 마치 큰 언덕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기도 하고, 서해안에서 제일 큰 섬이라 하여 큰 언덕이란 뜻으로¹⁾이름 지어진 섬 대부도.

안산 에코뮤지엄의 출발지였던 대부도에서 2016년부터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늘 고민이었던 부분은 '자생적 지역활동가의 발굴과 유지'였습니다.
2021년 <에코시민학교 바탕지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 과정 속에서 주민의 이야기를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도 주민이 선생님이자 학생으로서 모든 회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참여하셨던 분들은 저마다 무궁무진한 콘텐츠를 품고 계신 기획자였습니다.
이 점에서 기인하여 올해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가진 큰 언덕, 대부도의 뿌리를 만들고자 큰섬뿌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 개요

- 사업주관** 대부도 고랫부리섬 생태관광마을협동조합
진행기간 2022. 7. ~ 11.
진행장소 대부도 에코뮤지엄 거점 공간(구 대부면사무소), 에코뮤지엄 컬렉션 일대
사업목적 대부도 에코뮤지엄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자생적 지역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 사업간담회
 - 큰섬뿌리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기초·심화과정)
 - 삼삼오오 지원사업
 - 활동 결과공유회

1) 김주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4430>



큰섬뿌리 프로그램
활동가 양성 교육 결과 영상



<큰섬뿌리> 프로그램 결과공유회



큰섬뿌리 활동가 - 대부광산팀



큰섬뿌리 활동가 - 대송습지팀



큰섬뿌리 활동가 - 고랫부리팀

대부도 거점 문화 공간 조성

안산 에코뮤지엄 컬렉션이자, 대부도 에코뮤지엄 거점 공간이며,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27호로 지정된 '구 대부면사무소'.

2016년, 에코뮤지엄센터로 지정되며 여러 단체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 공간에서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받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에코뮤지엄이 뭐예요? 이 공간은 무엇을 하는 곳이죠?'

관심과 궁금증을 갖고 공간에 들어오시지만, 내부를 잠깐 훑어볼 뿐 주인과 방문객은 물음에 관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구경할 것이 없는 환경을 보며 풀어야 할 실용치라고 생각했기에, 그 자체가 문화재자료인 구조물을 건들지 않고 내부에 문화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도 지역단체가 기획하고, 지역작가가 참여했으며, 구 대부면사무소를 재탄생시킬 당시 참여했던 지역 목수님 등 큰 섬의 힘이 모였습니다.



대부도 에코뮤지엄 거점 공간
(구 대부면사무소)

프로그램 개요

사업주관 문화공간 섬자리

진행기간 2022. 7. ~ 10.

진행장소 대부도 에코뮤지엄 거점 공간(구 대부면사무소)

사업목적 대부도 에코뮤지엄 거점 공간 활성화 및 콘텐츠를 통한 사업과 지역 소개
공간구성

- 지역 및 사업 안내 공간
- 안산권 에코뮤지엄 아카이빙 공간
- 기획 상설 전시 <재속시설>
- 지역 공예 및 유물 전시 공간



문화 공간 조성 모습

거점 공간 내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간 조성 내부를 최대한 경험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천장부까지 공간 사용



사업 안내 및 지역전시



에코뮤지엄 사업 홍보 공간



기증 사진 자료 전시



경기 에코뮤지엄 안산권 아카이브
방문객 누구나 자료 열람이
가능하도록 자료 배치 및
서적 리스트업·관리



기증 유물 전시

기획상설전시 <재속시절>

작가 박혜정, 김재숙
 작품 총 18점
 기간 2022. 11. ~ 2023. 11.



상동에서 어느날, 태어났습니다. 동태에는 나지막한 산이 있었구요. 아담한 논과 밭이 편안하게 주위를 감싸 주었습니다. 조금만 나가면 큰물이 오가는 너른 갯벌이 펼쳐져 있었으니 제가 사는 이곳은 사방이 모두 놀이터이고, 살터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 손 솜씨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열집에서 배어 온 대나무로 갈퀴를 만드시는 아빠를 몰래몰래 훑쳐보곤 하였고요. 일찍 돌아가셔서 얼굴을 뵈는 적은 없지만 빗짚으로 만들어진 할아버지의 삼태기를 웬지 모르게 지금까지도 귀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싸리나무를 키워 빗자루를 만들고 계신 엄마도 만들기의 재료가 되는 다양한 풀과 꽃들을 기가 막히게 키워내십니다.

그중 저의 눈과 마음을 매우 요란하게 만든 건 아버지의 망태기와 종태기입니다. 훌훌훌 살펴 보며 그 손 솜씨를 어찌나 탐하였던지요.

할머니와 엄마는 망태기와 종태기에 어느 때는 바지락울, 어느 때는 까무락울 어느 때는 맛깔스런 농작물들을 가득가득 담아 오십니다. 저 비어있는 바구니에 뭔가를 담게 될 땐 우리 모두를 살리는 바구니가 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시작하였습니다.

사라져 버린, 혹은 사라져 갈 몇 가지의 장면들을 다시, 되살려 봅시다. 이곳에 있는 작품들은 대부도에서 비롯된 삶의 흔적, 생의 기록입니다.



설치 과정



03

마을에리어
기억에리어
역사에리어



땅과 시간의 이야기 - 마을에리어

<땅과 시간의 이야기> 프로젝트 '마을에리어'

대부도의 곳곳은 그 자체가 에코뮤지엄 컬렉션인 동시에 과거 공동체와 미래 공동체를 잇는 콘텐츠입니다. 마을이란 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 이어지고 변화하는 것, 그리고 사라지는 것의 복합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대부도에서 발견된 상어에서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나 삶 속에서 겪으며 공감할 수 있는 '관혼상제' 중, '상장례'라는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활동을 통해 지역적 가치를 발굴하고자 했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일상적 사건을 통해 공동체 특성 및 본질들을 관찰하고, 대부도 주민들과 함께 기획전시를 구성했습니다. '마을'이 주제였기에 작가 위주의 작업보다,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였고, '우리-감정we-feeling' 및 '연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 개요

사업주관 문화공간 섬자리

진행기간 2022. 7. ~ 11.

진행장소 대부도 일대, 안산문화재단 화랑전시관 제1전시실

사업목적 지역의 전통적인 공동체와 그들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일상적 사건의 시각 콘텐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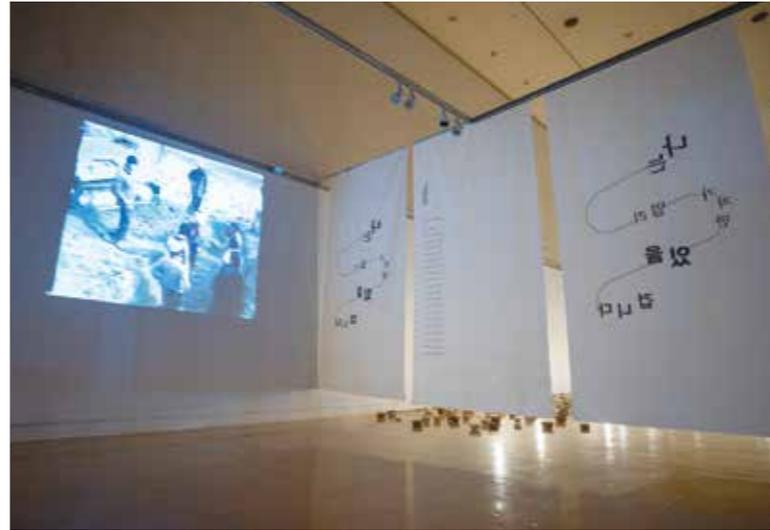
- 프로그램
- 지역리서치 진행
 - 리서치 기반 작품제작 및 기획전시
<나는 멀리 가지만, 있을 겁니다>
 - 웹도록 및 결과 영상 제작



마을에리어 전시클립 영상
<나는 멀리 가지만, 있을 겁니다>



나는, 모두
(혼합매체, 가변크기, 2022)
현재 마을을 기억하고 있는
76인이 내놓은 그릇 300여 점에
흙, 물, 실 등 각각의 상징물을 담아
조명과 함께 설치한 작업.
과거 마을에 큰 행사가 있으면 집마다
그릇을 모아 일을 치르곤 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가치각색의 그릇들은
한 사람임과 마을임을 표현.



마을이 보이는 날(비디오, 10분, 이구영, 1990)
제공자가 1990년 모친상에 촬영한 영상으로
과거 장례절차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이별의 순간에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

나가는 소리(텍스트와 사운드, 6분 10초, 2022)
1997년 마을에서 마지막 상여가 나간 후 30년 만에
다시 마을 사람들(6인)과 함께 재연한 상여소리로,
가사의 운율을 살려 시각적으로 표현한 레터링과
사운드를 공간에 채워 마치 관람객과 함께 그 순간에 있고자 함.



땅과 시간의 이야기 - 기억에리어

<땅과 시간의 이야기> 프로젝트 '기억에리어'

끊어진 뱃길이자 잊힌 어항 '사리포구'. 셀 수 없이 많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잘게 흩어진 기억 조각들을 찾아 콘텐츠로 엮고, 고향을 추억하는 주민들을 모였습니다.

안산은 여러 어촌계가 있던 바닷가 마을이었고, 사리포구는 도시 근교 어항으로 많은 사람의 발길이 이어지던 곳이었습니다. 1994년 시화방조제가 완공된 후, 사리포구는 안산호수공원에 표지와 함께 단편적인 기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구역상 이름인 '안산시 사동'보다 동네 이름인 '사리'로 자주 불리고, 마을을 지나는 역 이름도 '사리역'입니다. 이러한 명명의 힘엔 기억의 이어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리포구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생계 활동을 했던 어머니이자, 딸이자, 며느리였던 여성들의 삶은 어땠을까? 흔적 없이 사라진 공동체에 대한 사리포구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프로그램 개요

사업주관 사동지역사무임

진행기간 2022. 7. ~ 11.

진행장소 사동 에코뮤지엄 거점 공간(1°C), 사동 일대, 사리포구 옛터, 소극장 보노마루

사업목적 사동 거점 공간 운영 및 사리포구 주제 콘텐츠 기획

- 프로그램
- <두 번째 사리포구, 사라진 이야기를 꺼내다> 출판
 - <내 고향 사리포구> 미니 다큐 제작
 - 사리포구 콘텐츠 통합 행사 북토크 진행



사리포구 미니 다큐
<사라진 내 고향 사리포구>



사리포구 사진, 도서, 상품 전시



사동지역사모임 소개



북토크

<두 번째 사리포구, 사라진 이야기를 꺼내다>
- 고향 다시 기억하고 말하다

- | | |
|---|-----------------|
| ① | ① 축하 공연(아코드) |
| ② | ② 사리포구 주민 |
| ③ | ③ 시낭송(김희숙) |
| ④ | ④ 사리울 프로젝트(신민영) |



땅과 시간의 이야기 - 역사에리어

<땅과 시간의 이야기> 프로젝트 '역사에리어'

안산동(安山洞),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조선시대 안산군의 읍치로 안산시의 발원지이며, 안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수암봉이 마을을 아우르는 곳에서 역사를 짚었습니다.

'독수리 바위(수암봉)'가 오랫동안 지켜온 마을에는 묵묵히 역사를 간직한 노거수와 안산읍성, 관아지터, 비석거리, 원당사터, 청문당 등 다양한 역사 자원들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켜켜이 쌓이는 이야기를 간직한 채 주민들과 함께 땅과 시간을 공유합니다.

안산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사는 우리조차 그 깊이를 잘 모르기에, 땅과 시간의 이야기를 배우고, 주민들 각각 품어왔던 역사의 페이지들을 모았습니다. 과거의 모습과 현재 우리의 모습을 다른 시간 같은 장소로 엮어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 개요

사업주관 온새미로 마을학교

진행기간 2022. 7. ~ 11.

진행장소 안산동 에코뮤지엄 거점 공간(온새미로 들락날락), 안산동 일대

사업목적 마을 역사의 예술콘텐츠화 및 자생적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전문성 함양

프로그램 • 시민 활동가 발굴 및 양성을 위한 해설사 교육 프로그램

• 기획 전시 <독수리 바위 마을 사람들 이야기>



독수리 바위 마을 해설사 양성 과정

거점 운영 인력의 전문성 함양 및 새로운 주민 활동가를 발굴 · 양성
실내 이론 강의 및 실외 현장 강의 진행



거점 공간 내 기획전시 <독수리 바위 마을 사람들 이야기>



거점 공간 정비 및 전시 준비



04



하나로 연결하기 이음 프로젝트

'안산시 에코뮤지엄 이음 지도'는 2016년부터 진행되어온 안산의 에코뮤지엄을 하나로 연결하는 지도입니다. 사업의 궤적 속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지역 유산과 활동을 알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경기만에서 출발하여 대부도 해양생태문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안산 에코뮤지엄 사업은 2022년, 안산 전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과 함께 안산 에코뮤지엄 컬렉션과 잠재력 있는 지역 자원들을 발굴·연결하고, 권역별 거점화를 진행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서 대부도, 사동, 수암동의 커뮤니티 단체와 협업하여 에코뮤지엄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안산시 에코뮤지엄 컬렉션 35선과 3곳의 거점 공간들, 그밖에 지역 주민이 소개하고 싶은 장소들을 하나의 지도에 담았습니다. 지도와 함께 문화·역사·생태가 살아 숨 쉬는 안산을 만나보세요.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
안산시 에코뮤지엄 이음 지도



안산시 에코뮤지엄 컬렉션

에코뮤지엄 컬렉션은 2016년 안산, 화성, 시흥 3대 연안 도시와 함께 '경기만 에코뮤지엄' 통합브랜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경기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생활 자원들을 선정한 결과물입니다.

에코뮤지엄 컬렉션은 총 100선으로 경기만의 고유성, 특정성, 보존가치, 순환성 등을 고려해 산업과 생산, 생명·평화운동, 사람들, 역사·문화, 도보 여행길, 자연유산, 축제 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중 안산시는 총 35개의 에코뮤지엄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도, 풍도, 시화호 주변, 안산 시내 등지에 분포하며 자원의 성격 및 위치 등에 따라 11개의 유형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안산시 에코뮤지엄 컬렉션의 위치는 '이음 지도'에서 볼 수 있으며, 자세한 설명은 경기 에코뮤지엄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기 에코뮤지엄 홈페이지
상생공생 - 경기만 에코뮤지엄 스토리텔링북

시화호	시화호방조제와 조력발전소 시화호생명운동 시화호생명지킴이 시화호갈대습지공원
방아머리	마산수로 대부도 2호선 낙섬해안 흰발농게
상동	구 대부면사무소 대부도 상동 동주염전
선감도	대부광산퇴적암층 선감학원 이하라 히로미쓰 선감학원 생존자 경기창작센터
고랫부리	남리갯벌 노랑부리백로 낭장 메추리섬 돌살
누에섬	안산어촌민속박물관 누에섬 탄도지층
풍도	풍도바람꽃 풍도 풍도등대
그리움	수인선협궤철길 사리포구 신길역사유적공원 별망성지
안산 인물	정진각 최춘일
안산 문학	해거방축 이억 연성8경 강세황
안산 경기만 여행길	해솔길



사업을 마무리하며

05

갈무리

사업후기 - 참여단체

사업후기 - 참여자

에코뮤지엄을 함께한 사람들

참여실적



사라지고 이어지는 것에 관해, 안산 땅과 시간의 이야기

황윤경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 사업담당자)

2019 경기만 에코뮤지엄 <대부도 예술섬 누에>, 안산의 에코뮤지엄을 처음 접한 사업이었습니다.

지역문화부 기간제 사원으로, 대부도의 누에섬과 대부광산퇴적암층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에코뮤지엄을 경험했습니다. 서해안의 큰 섬 대부도의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예술 프로그램 속에서 참여하는 분들의 즐거움이 듬뿍 담긴 표정을 보며 큰 뿌듯함을 느꼈던 것이 안산 에코뮤지엄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2022, 올해는 사업담당자로서 안산 에코뮤지엄을 기획·운영했습니다.

'에코뮤지엄'을 알게 경험한 상황에서, '지붕 없는 박물관, 에코뮤지엄'이란 문장에는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개념과 폭넓은 해석을 함의하고 있는 에코뮤지엄 사업의 명확한 목표와 실제 수행 방법·전략 등은 쉬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궁금증을 한껏 가진 채 지금까지의 안산 에코뮤지엄 사업을 살펴보고, 사업을 진행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도의 다른 지역들에서 에코뮤지엄 사업을 풀어내는 방식을 통해 사업에 다가갔습니다.

'경기만 에코뮤지엄'이 '경기 에코뮤지엄'으로 확장하고 지역 주민과 손잡아 함께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산도 올해부터 사업지를 대부도를 포함한 안산 전역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과 함께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의 문화·생태 자원의 고유한 가치와 특색을 발굴하고자 했습니다. 안산이 가진 수많은 색과 개성의 지역 유산은 커뮤니티 단체들의 손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도의 '문화공간 섬자리'와 '대부도 고갯부리섬 생태관광마을협동조합', 사동의 '사동지역사모임', 안산동의 '은새미로 마을학교'. 그리고 즐겁게 참여해 주신 주민들. 에코뮤지엄 사업을 기획·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없었다면, 각각의 지역이 품고 있는 자원들을 발견하고 문화예술로 풀어내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산이 가진 단단한 문화의 그릇이자 지역적 자본인 문화유산, 가치, 유·무형의 자원에 관해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며 애정의 눈으로 살펴보고 행동해온 지역 주민분들이말로 진정한 에코뮤지엄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안산의 에코뮤지엄에는 이러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주민참여'와 이들과 함께하는 '집재력 있는 자원의 발굴 및 거점화'가 동행했으면 합니다.

올해 사업을 운영하며, 대부도와 사동, 안산동을 여러 번 방문하고 커뮤니티 단체들의 발자취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히려 문장으로 풀이된 에코뮤지엄보다 더 그 실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에코뮤지엄의 다양한 풀이 중에 있는 '주민에 의해, 주민을 위해 설립된 공동체 박물관'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년을 사업과 함께했지만, 여전히 에코뮤지엄은 너무나도 넓고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 원고를 작성하면서도 안산 에코뮤지엄에 관해서 글로 잘 풀어내고 있는지 몇 번이나 다시 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심 없이 항상 중심에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혼자였다면 해낼 수 없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후기 - 참여단체

문화공간 섬자리 _ 박진

에코뮤지엄사업은 항상 쉽지 않은 순간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마을 사람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뜻하지 않게 다음 여정의 행보가 결정되기도 하고, 미사여구로 점철된 사업목적보다 어른의 살아있는 말에서 지역 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함께 한 어르신들의 말이 가슴에 박혀 있어, 저희의 다음 여행의 방향이 될 듯합니다.

“자, 벗님네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끝까지 움직이지 못하는 내 실정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소리만 잘 받아주시면 됩니다.”

대부도 고갯부리섬 생태관광마을협동조합 _ 강정미

경기 에코뮤지엄을 최초로 시작했던 지역이 대부도입니다. 그동안 대부도 에코뮤지엄 거점센터도 마련하고, 공간에서 여러 의미 있는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부도는 마을마다 보물 같은 역사와 자원들이 구슬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 구슬을 꿰어 줄 마을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주민들입니다. 그렇기에 에코뮤지엄 주민 활동가 양성을 제안했고, 귀 기울여주신 안산문화재단이 있었기에 양성과정이 가능했습니다.

자연과 생태를 사랑하는 '에코뮤지엄 활동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삼삼오오 파일럿 과정을 거치는 큰섬뿌리 활동가 양성을 진행했습니다. 1차 기본과정 · 2차 심화과정 · 3차 삼삼오오 파일럿 사업까지 전문가처럼 집중하며 진행했습니다.

대송습지 · 대부광산 · 고갯부리 지역에 생태관광 프로그램 기획을 마쳤고, 수료 후 '큰섬뿌리 활동가 연구모임'을 통해서 학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활동의 하나로 대부도 탐조대회 대외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부도 에코뮤지엄 거점 공간에서 다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에코뮤지엄 활동을 하나갈 예정입니다. 가장 귀한 자원은 사람입니다. 진행은 애달프게 짝사랑하였지만, 사람을 남기고 나니 모두 동지가 되어서 참으로 든든합니다.

사동지역사모임 _ 김부일

우리가 무엇에 홀려 마을 역사와 사람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사명감으로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놓치지 않고 잘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사랑하며, 정다운 공동체를 가꿔왔던 사리포구 분들의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감동이었습니다.

무심히 사라진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고 소중한 기억마저 희미해진다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빨리 사라지고 빨리 잊히고 빨리 새것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이 품은 가치마저 함께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사라진 사리포구를 기록하는 것은, 그 속에서 삶을 일군 이들의 공동체가 있고 안산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나의 고향 안산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두 번째 사리포구 사라진 이야기를 꺼내다' 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이미 사라진 것

앞으로 사라질 것에 대한 예의는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은새미로 마을학교 _ 정금희

안산동은 옛 안산의 중심지로서 천년의 역사가 이어지는 곳입니다. 안산시의 신도시 개발 이후에도 독수리바위(수암봉) 아래 자연 생태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2대, 3대를 이어 사는 주민의 비율도 높아서, 근현대 마을의 역사와 생태의 변천을 기억하고 있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역사 · 생태적 배경을 바탕으로 <2022년 경기 에코뮤지엄 안산 : 땅과 시간의 이야기>의 역사에리어를 기획하였고, “독수리바위 마을 해설사 양성과정”과 “독수리바위 마을 사람들 이야기 사진전”을 진행했습니다. 해설사 양성과정으로 마을의 역사와 생태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이해를 도왔고, 마을의 오래된 사진을 수집하고 현재의 안산동을 기록한 사진전을 통해 긴 세월 동안 독수리바위를 바라보며 그 아래 모여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사진으로 보고,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며 시간을 넘어 같은 공간에 사는 우리의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업후기 - 참여자

나는 큰섬뿌리 활동가이다 _ 큰섬뿌리 활동가 노용철

‘에코뮤지엄’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처음 접하였지만, <큰섬뿌리 프로그램>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교육을 통하여 ‘에코뮤지엄’이 이야기거리가 많은 대부도를 자연 그대로 즐길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지키며, 자연을 바탕으로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를 찾았습니다. 먼저 시작한 분들께서 소중한 경험담을 강요해 주셔서 훨씬 ‘에코뮤지엄’에 관해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처음 시작해 본 파일럿 기획 사업에서 나름 자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해 나가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첫 행사로 대부도 탐조대회 자원봉사를 진행했고, 조금이나마 외부에 우리의 활동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역에 오래 계신 원 주민분들과 유대와 친목이 돈독해진 것은 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과 그로 인한 결과가 기대됩니다.

사라진 마을에서 이야기를 만나며 _ 사동지역사모임 송보림

올해는 2017년부터 시작된 사리포구 아카이빙 작업을 열매 맺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리포구에 살았던 다양한 세대와 성별의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진 자료와 영상 자료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그곳의 살았던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의 눈으로 바라본 사리포구는 어느 순간 눈앞에 그려진 것처럼 생생해졌습니다. 한 동네에서 ‘누구네 집’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동네에 산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그냥 이야기만 들었을 뿐인데도 그런 고향과 내 동네를 잃는다는 것이 어떤 마음일지, 참 아련하고 서글프게 다가왔습니다. 그건 사리포구 책 1권을 쓰면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덧 시멘트와 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인 안산이란 도시에도 연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도시가 원래 이런 곳이 아니었구나. 이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삭막하지 않았구나. 이 콘크리트 땅 바로 아래에 있는 역사, 터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잊었을 뿐이지, 안산에도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구나. 바다와 갯벌, 논과 산으로 둘러싸인 옛 안산에 살던 아이들은 심심할 틈도 없이 마을에서 신나게 놀았고, 어른들은 서로 의지하며 일을 하고 아이 키우고, 삶의 희로애락을 같이 나눴겠구나….

사라진 땅, 사라진 마을을 만나면서 안산에 사는 이유를, 안산 사람들을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사리포구 기억을 마치며 _ 사동지역사모임 길은진

공간이며, 시간이며, 마음이 있던 곳. 잊히지 않는 정이 있는 곳.

철이 들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나이가 되고, 자연스럽게 기억되는 곳이 부모와 함께 자랐던 고향인듯싶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지금의 삶 한복판에서 무언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순간마다 마주하게 되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의 요소로 늘 ‘고향에서 나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사리포구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은 저에게는 고향을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분명 저는 그곳에 존재하지도, 그분들과 공유하는 추억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의 고향 이야기를 통해 나의 고향을 느끼며 들을 수 있었고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사리포구를 눈으로 볼 수 없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는 흔적을 하나하나 모아 글로 남길 수 있어서, 사리포구의 고향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사리울 프로젝트 _ 99°C 청년 신민영

‘사리울 프로젝트’는 단순히 지역의 역사만을 담아낸 공간 디자인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장 중요하게 여겨 크게 비중을 두었던 것은 바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역사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내가 사는 사동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고향이 후에 어떤 이야기로 회자 될지는 이곳에 사는 우리들의 몫일 것입니다.

안산동의 옛모습부터 지금까지 역사와 사람과 자연, 있는 그대로를 담은 사진전

_ 사진전 관람객 배현아

어린이가 나이 지긋한 어른이 되고, 그 어른들이 살아오신 옛 안산동 마을의 모습과 지금을 살아가는 안산동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모습까지. 특별히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이번 <경기 에코뮤지엄 안산: 땅과 시간의 이야기> 역사에리어 사진전인 “독수리바위 마을 사람들 이야기”에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사진전은 안산동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을의 오랜 역사, 사람과 동물과 자연의 따뜻한 온기, 심과 여유를 들여다보고 눈에 담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자리였습니다.

에코뮤지엄을 함께한 사람들

운영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

커뮤니티 단체

문화공간 섬자리

대부도 고갯부리섬 생태관광마을협동조합

사동지역사모임

온새미로 마을학교

도움

안산문화재단 공연기획부 정홍순

대부도 거점 공간 상주인력 손자영



참여자

대부도 - 큰섬뿌리 프로그램

강정미 김봉길 김희옥 노용철 박명하 이범안 이은숙 이창권 정미애 최경미 최명옥

대부도 - 마을에리어

강병규 김가은 김간난 김갑권 김광남 김금숙 김기범 김나현 김덕이 김두경 김명성
김미숙 김미순 김선화 김시경 김영순 김옥희 김윤호 김윤수 김은숙 김재숙 김정옥
김준이 김지영 김진숙 김현정 김효선 남궁화 민정자 민희숙 박미열 박세철 박승호
박양자 박영애 박은희 박혜정 서원자 손자영 송미자 송선희 신윤숙 안완전 오상록
오영수 우은녀 이구영 이경례 이경순 이미숙 이승금 이은주 이장준 이재분 임복엽
임상임 임선숙 임형임 장길선 장미애 장순옥 정유미 정종석 조강자 조귀님 차순임
천분옥 최병호 최은심 최은희 하영순 함옥선 홍사익 홍석만 홍성호 홍주영

사 동 - 기억에리어

사리포구 거주 맘머느리 모임

경명문 김부일 김은경 김용찬 김용호 김형모 김희숙 박상현 석정현 석주연 신대광
신민영 송보림 안광업 전준호

안산동 - 역사에리어

김민경 김솔이 김숙주 김영훈 권미희 민복숙 박완식 박지연 신대광 이영균 이진영
오현영 우정연 장인숙 정금희 정영화 조은경 조유리 허유미

참여실적

- 참여 지역 커뮤니티 : 4단체
- 거점조성 : 3곳
- 참가인원 : 465명
- 관람인원 : 1,362명
- 제작부수 : 3,310부

섬의 기억을 찾아 <큰섬뿌리>

큰섬뿌리 프로그램	No.	진행일자	프로그램	인원
	1	8.17	큰섬뿌리 프로그램 사업간담회	25
2	8.25 ~ 10.6	큰섬뿌리 활동가 양성교육 기본과정	182	
3	10.13 ~ 10.27	큰섬뿌리 활동가 양성교육 심화과정	72	
4	11.10	큰섬뿌리 프로그램 결과공유회	18	

대부도 에코뮤지엄 문화 공간 조성

No.	진행일자	프로그램	인원
1	2022.11 ~ 2023. 11	기획전시 <재속시절>	360
2	7 ~ 11	참여 예술인(박혜정, 김재숙)	2

<땅과 시간의 이야기> 프로젝트

마을에리어	No.	진행일자	프로그램	인원
	1	7 ~ 11	전시 기획 참여 *상여소리 재연 및 영상자료·그릇 제공 등	82
	2	11.7 ~ 11.13	기획전시 <나는 멀리 가지만, 있을 겁니다>	140

기억에리어

No.	진행일자	프로그램	인원
1	7 ~ 10	워크숍, 역사 교육, 출판 기획 회의 등	28
2	7 ~ 10	미니다큐 <내 고향 사리포구>	17
3	7 ~ 10	출판물 <두 번째 사리포구, 사라진 이야기를 꺼내다>	300
4	10.22	북토크 <두 번째 사리포구, 사라진 이야기를 꺼내다>	57

역사에리어

No.	진행일자	프로그램	인원
1	8.10 ~ 10.12	독수리 바위 마을 해설사 양성과정	41
2	11.11 ~ 상설전시	기획전시 <독수리 바위 마을 사람들 이야기>	805
3	7 ~ 11	결과앨범 <독수리 바위 마을 사람들 이야기>	10



하나로 연결하기 <이음> 프로젝트

No.	진행일자	프로그램	제작
1	6 ~ 9	안산시 에코뮤지엄 이음 지도	3,000



안산문화재단

“시민 문화향유를 최고화하는 문화재단”

안산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선도하는 안산의 대표 문화기관입니다. 문화예술 가치를 공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역 내 예술진들과 지역민의 창조적 문화예술활동을 북돋우고, 문화향유기회를 높이며 이를 통해 문화의 향기가 있는 안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ansanart.com>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ascf_ansa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scf.ansan>
유튜브 <https://www.youtube.com/@AnsanCulturalFoundation>



안산문화재단
홍보영상



2022 경기 에코뮤지엄 <안산 : 땅과 시간의 이야기> 결과자료집

주최주관 안산시, 경기문화재단, 안산문화재단, 경기에코뮤지엄

발행일 2022. 12.

발행처 (재)안산문화재단

발행인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총괄 문화예술본부장 김춘일

책임 지역문화부장 황우자

기획운영 지역문화부 황윤경

운영지원 지역문화부 김민정, 신종철, 유다인, 하혜진, 오혜미

참여단체 문화공간섬자리, 대부도고랫부리섬생태관광마을협동조합, 사동지역사모임, 온새미로 마을학교

그래픽일러스트 엄지

디자인 및 인쇄 다인기획

편집 황윤경

촬영 FILM HK

© (재)안산문화재단 (1535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312)

T. 031-481-4000 F. 031-481-0520 W. www.ansanart.com

본 자료집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안산문화재단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2 경기 에코뮤지엄 결과자료집

안산 : 땅과 시간의 이야기

